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최효미 부연구위원

본고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파악을 통해,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도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0~2세와 5세에게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201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감소하였으나, 전 연령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 2013년 이후에는 교육·보육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을 살펴보면,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월평균 16만 9천원이었으며, 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22만 8천원의 교육·보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유아 가구를 위한 교육·보육지원 정책이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정 내 양육 활성화 및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등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서론

가. 문제 제기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영유아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 및 동등한 교육·보육기회의 보장 등을 정책 목표로¹⁾, 영유아 가구 전 계층 전 연령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렇듯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정책 실효성에 대

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영유아의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2013년도 이전에는 3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2013년부터 전 연령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큰 폭의 예산 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4년에도 이어져, 2014년 1조 2,153억원의 예산이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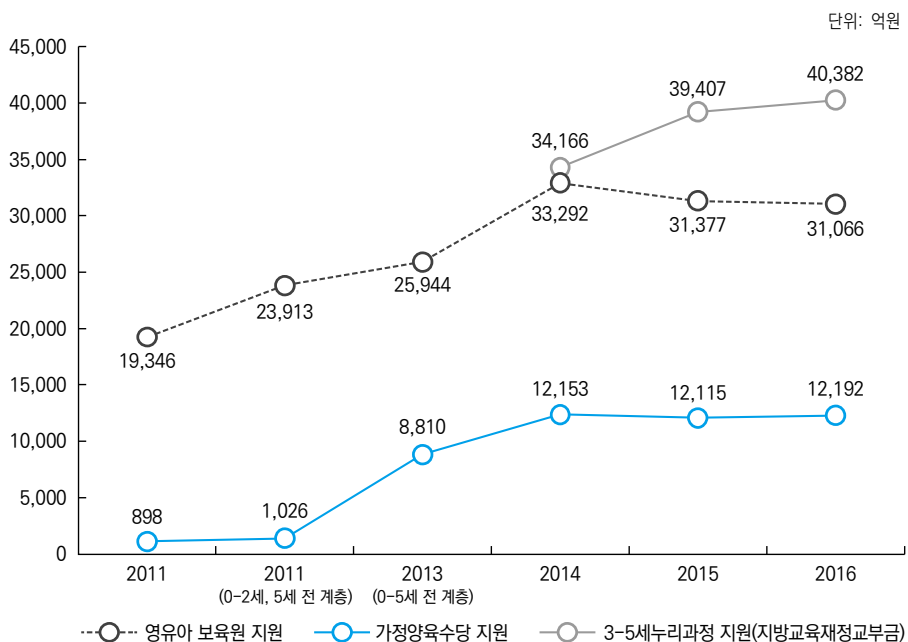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추정 연구(Ⅳ)」(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 발간예정)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보건복지부(2013). 제 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당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2011년 1조 9,346억원에서 2016년 3조 1,066억원까지 증가하였다. 보육료 지원 예산의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2014년으로 3조 3,292억원에 달했으며, 이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누리과정지원예산(어린이집 지원 포함)은 2014년 3조 4,166억원에서 2015년 3조 9,407억원, 2016년 4조 382억원으로 증가폭이 감소하긴 하나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누리과정 지원금과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2016년 기준 8조 3,640억의 예산이 영유아 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재정 소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서수경, 2012: 4; 최성은, 2016: 23 등).³⁾ 이에 본고는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전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2016년도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 1) 2012년에는 0-2세 보육료 및 5세 누리과정 지원이 전 계층에 실시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됨. 가정양육수당은 2011~2012년은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만 지원했으나, 2013년 이후 전 연령 전 계층에 지원함.
 2) 전 계층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2013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전년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2014년 이후 자료만 제시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p.579, 2)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안내 부록, p.173
 3) 보건복지부(2014). 보육사업안내 부록, p.175. 4)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부록, p.193.
 5)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부록, p.241. 6) e-나라지표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및 예산 추이」²⁾

[그림 1]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예산

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6 (2016.11.17.일 인출)

3) 서수경(2012).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필요경비 가이드라인 구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성은(2016).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 규제. 재정포럼 2016년 1월호(제235호), 23-35.

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변화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실시 시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나정, 2014: 52-53).⁴⁾ 나정(2014)⁵⁾에 따르면, 무상 교육·보육 정책은 1999년 이전에 이미 수립되고 법제화되었으나, 정책의 시행은 농어촌지역 만 5세 유아에게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였다. 이후 2001년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비·보육비’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4년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만 3~4세아 차등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12년에는 만 5세의 경우 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2013년도에는 만 3~4세아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혹은 정부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아동수당인 가정 양육수당은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 2009년 당시에는 24개월미만 영아에 한해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되다가, 2011년 36개월미만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도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함께 84개월 미만 영유아로 지원 대상이 확장되었다.

2016년 기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은 일반아동 기준 0세 41만 8천원, 1세 36만 8천원, 2세 30만 4천원, 3~5세는 22만원이 지원된다.⁶⁾ 가정 양육수당은 12개월미만의 경우 20만원,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15만원, 24개월이상 84개월미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 10만원이 지급된다.⁷⁾

다. 영유아 교육·보육비 범주

본고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은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비용을 포괄하는데,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모든 비용과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모든 비용, 시간제 학원이나 학습지,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 통신교육 등에 소요된 시간제 사교육비와 개인 양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때,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외에 정규 교육·보육과정을 위해 지출되는 수업료와 기타비용(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그리고 시간연장형 보육비용, 방과후 과정 이용비용,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이 등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 비용			시간제 사교육비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어린이집 이용비용 • 수업료 • 현장학습비 등 기타비용 • 시간연장형보육비 • 특별활동 이용비용	유치원 이용비용 • 수업료 • 현장학습비등 기타비용 • 방과후 과정비 •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 • 수업료 • 현장학습비등 기타비용 • 방과후 과정비 • 특별활동 이용비용	• 시간제 학원 • 학습지 • 개인 및 그룹지도 • 통신교육	• 혈연도우미 • 비혈연도우미

[그림 2]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범주

4), 5) 나정(2014).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분석: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유아교육학논집, 18(1), 49-71.

6)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p.76.

7)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p.300.

2.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추이

먼저,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변화가 컸던 2012~2013년을 전후하여,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비용 지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고는 노동패널조사 2010년(13차년도)~2014년(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동일한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지는 패널자료를 이용할 경우 표본의 차이에 따른 자료의 왜곡이 적기 때문이다. 즉, 표본 규모가 크지 않은 횡단면 자료를 활용할 경우, 표집 방식 및 표본 특성에 따라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매해 변동하는 지출 변화가 실제 지출의 변화인지, 표본의 특성에 따른 지출 변화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⁸⁾ 한편, 지출 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기준)를 반영하여 실질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은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0세아의 경우 매년 평균 10만원 이하였으며, 4세아의 경우 30만원 전후의 평균 비용을 보였다. 이는 0세아의 경우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자 자체가 적어 평균 비용이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0~2세와 5세에 한해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 201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총 교육·보육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2012년 0세아의 총 교육·보육비용은 평균 2만9천원으로, 전년도 4만

6천원에 비해 약 1만 7천원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세아와 2세아의 경우에는 감소 폭이 훨씬 커서, 2011년 각각 평균 12만 2천원, 19만 5천원이던 총 교육·보육비용이 2012년 각각 8만 7천원과 14만 3천원으로 감소하였다. 특이한 점은 정책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3세아의 경우에도 2012년도에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21만 8천원으로 전년 26만 6천원에 비해 4만 8천원 가량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이 전 연령 전 계층으로 전면 확대된 2013년도에는 영유아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2012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3년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은 0세 8만 9천원, 1세 22만 2천원, 2세 32만원, 3세 33만 1천원, 4세 33만 3천원이었다. 이 같은 지출 수준은 큰 폭의 감소가 포착된 2012년도 이전, 즉 2011년도에 비해 서도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2013년도 교육·보육비용의 큰 증가는 주로 두가지 현상에 기인하는데, 첫째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자 자체가 크게 증가한 점이고, 둘째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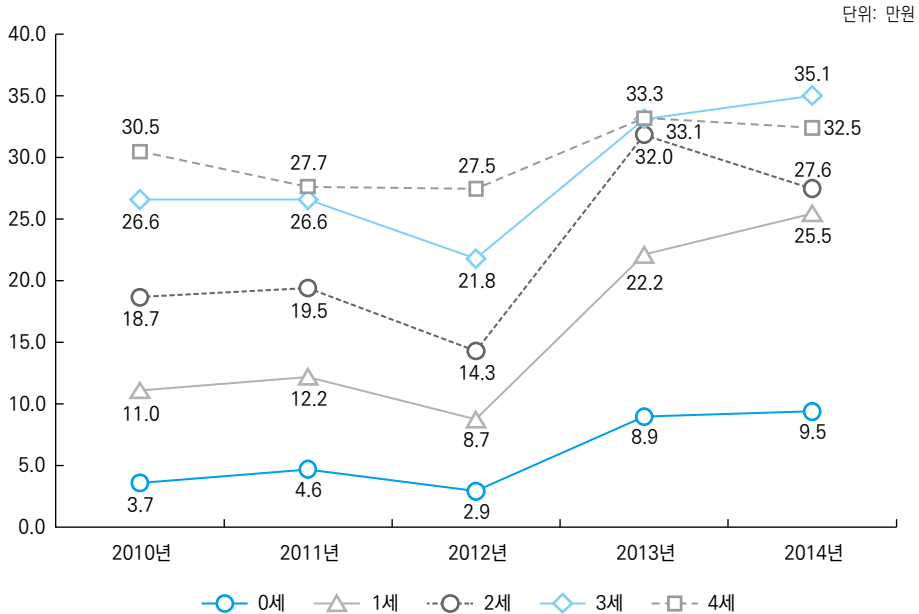
2012년을 전후하여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비용 지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총 교육·보육비용의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특히 이 같은 현상은 1세 이하 영아기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즉, 2013년 전 연령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양육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의 쏠림 현상이 비용 상승

8) 단, 현재 이용 가능한 노동패널자료 17차년도 자료까지 중에서 16차년도와 17차년도에는 조사단계에서의 실수로 5세(보육연령)에 한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이 조사되지 않았음. 이에 보고에서는 전체적으로 5세아들의 이용비용은 보고하지 않았음.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표본 수는 2010년 1,046명, 2011년 1,118명, 2012년 1,084명, 2013년 1,080명, 2014년 980명으로 총 5,308명임.

9) 모든 연령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함.

10) 자세한 내용은 최효미 외(발간예정)의 III장 참조

집 중 조 명



주: 1) 노동패널조사 16차(2013년)~17차(2014년)에 5세(보육연령)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이 조사되지 않아, 표에서 제외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0=100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실질비용이며,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0원)을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 값임.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13차(2010년)~17차(2014년) 원자료.

[그림 3] 연령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비용 변화 추이(2010~2014년)

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세와 4세 유아의 경우에는 2012년을 전후하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자가 다소 증가하긴 하였지만, 2012년 이전에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자가 많았던 연령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아와 4세아의 2013년도 총 교육·보육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에 따르는 서비스 이용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¹¹⁾ 단, 노동패널자료의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을 총액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인해 비용 상승

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3. 2016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지금부터는 2016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하의 분석 결과는 최효미 외(발간예정)¹²⁾에서 수집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 2016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11) 필자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확대 시행 이후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비용이 사교육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교육 이용 비율 및 비용의 변화를 분석해보았으나, 오히려 2013년 이후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12) 2016년 12월 초 기준, 조사 및 기초적인 분석이 완료되었으나, 보고서 발간 이전 자료로 이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및 지출 비용을 세부적인 항목까지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연령, 성별 영유아 수를 고려한 표집 및 가중치 부여를 통해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을 밝혀둔다. 본 실태조사의 응답자 수는 총 1,820명으로, 각 연령별로 약 300명 내외이다.

가. 총 교육·보육비용

2016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을 살펴보면, 비용 지출이 없는 영유아를 포함할 경우 월평균 16만 9천원이었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22만 8천원이었다. 총 교육·보육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0%였으며, 총 교육·보육비용이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만원~3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25.6%였으며, 30만원~50만원 미만 9.3%, 50만원 이상 8.3%였다.

영유아의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총 교육·보

육비용이 0원(없다)이라는 응답이 78.2%로 매우 높았으며, 1세에는 이 비율이 39.3%로 감소하고, 2세에는 18.5%까지 감소하였다. 3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10%미만으로, 3세 7.3%, 4세 7.6%, 5세 6.1%였다. 한편, 비용 구간별로도 1세와 2세의 경우 10만원미만이 각각 47.4%와 5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3세에는 10~30만원 미만이 42.6%로 가장 높았다. 한편, 4세와 5세의 경우에도 10~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35.6%와 41.6%로 가장 높긴했으나,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30~50만원, 50만원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각 연령별 총 교육·보육비용(미지출아동 포함)은 월평균 0세 8만 4천원, 1세 4만 5천원, 2세 11만 5천원, 3세 23만 6천원, 4세 25만 4천원, 5세 27만 5천원으로 1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지출 아동만을 기준으로 평균 비용을 산출한 경우에는 0세 아동의 지출 비용이 38만 6천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0세아의 경우 교육·보육서

〈표 1〉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 2016년)

단위: %(명), 만원

구분	없음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수)	평균비용 (미지출포함)	평균비용 (지출아동)
전체	26.0	30.8	25.6	9.3	8.3	100.0(1,820)	16.9	22.8
아동 연령별								
0세	78.2	11.1	2.0	1.3	7.4	100.0(301)	8.4	38.6
1세	39.3	47.4	10.5	1.8	0.9	100.0(300)	4.5	7.4
2세	18.5	50.5	20.6	5.2	5.2	100.0(300)	11.5	14.1
3세	7.3	26.9	42.6	12.8	10.4	100.0(301)	23.6	25.5
4세	7.6	26.9	35.6	19.4	10.5	100.0(300)	25.4	27.5
5세	6.1	22.5	41.6	14.7	15.2	100.0(318)	27.5	29.2
$\chi^2(df, F)$			892.3(20)***			-	42.4***	23.5***

*** $p < .001$

비스 이용 비율은 낮지만,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개별돌봄서비스와 같이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스별 이용비용은 각각의 서비스별로 이용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나.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이용비용

이 항에서는 영유아들이 어떠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교육·보육서비스는 크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과 같이 반일 이상 이용하는 서비스와 시간제 학원, 학습지와 같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개별돌봄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교육비용에 해당하지만, 기관 이용 시간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구성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과 함께 반일 이상 이용 기관에서 살펴보았다. 교육·보육서

1) 반일 이상 이용 기관에 대한 지출 비용

전체 응답자 1,820명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49.9%(908명)이며, 유치원 이용자 28.2%(513명),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4.2%(76명)이었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기관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1세와 2세때 각각 80.1%와 88.5%로 매우 높은 이용비율을 보이다, 3세 이후 유치원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이용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일 이상 이용기관의 총 이용비용은 기관에 지출한 모든 비용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뿐 아니라, 현장학습비 등의 기타비용, 특별활동 이용비용,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은 평균 6만 5천원이었으며, 유치원 총

〈표 2〉 반일이상 이용 기관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2016년)

단위: %(명), 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율(수)	총액기준 월평균비용	이용비율(수)	총액기준 월평균비용	이용비율(수)	총액기준 월평균비용
전체	49.9(908)	6.5	28.2(513)	19.4	4.2(76)	61.8
아동 연령별						
0세	18.4(56)	3.5	-	-	1.1(3)	50.9
1세	80.1(240)	4.3	-	-	1.3(4)	26.2
2세	88.5(266)	5.7	-	-	5.5(16)	45.0
3세	54.4(164)	8.4	39.5(119)	22.3	5.0(15)	64.6
4세	33.9(102)	9.0	59.9(180)	19.1	5.0(15)	76.0
5세	25.5(81)	7.1	67.3(214)	18.0	7.0(22)	70.6
F	-	17.4***	-	3.1*	-	2.1

주: 1) 총액에는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보육료, 특별활동비, 특성화프로그램비, 방과후 과정비, 시간연장형 보육료,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각 연령별 기관 이용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수(0세 301명, 1세 300명, 2세 300명, 3세 301명, 4세 300명, 5세 318명임) 대비 각 기관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이용비용은 비용지출이 있는 경우의 평균값임.

* $p < .05$, *** $p < .001$

이용비용은 19만 4천원, 반일제 이상 학원 총 이용비용은 61만 8천원이었다.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유치원 총 이용비용이 어린이집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0세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3만 5천원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용도 조금씩 증가하여 4세의 경우 9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3세 22만 3천원, 4세 19만 1천원, 5세 18만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약간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급당 원아수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된다.

한편,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없는데다 사설 학원의 특징으로 인해 이용비용이 매우 비쌌는데, 3세 64만 6천원, 4세 76만원, 5세 70만 6천원으로, 유치원 이용비용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반일제 이상 학원의 이용자가 매우 적으므로, 수치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이후 오후 시간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별활동 참여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아 중에서 특별활동 이용자는 70.6%였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 중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자는 71.4%였다. 특별활동 평균 이용개수는 어린이집 2.9개, 유치원 3.3개였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 총 이용비용은 평균 5만 8천원이었으며,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평균 8만 4천원으로, 어린이집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치원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개수보다는 과목당 이용비용이 약간 더 비싼 것에 기인한다. 한편, 특별활동 총 이용비용과 특성화 프로그램 총 이용비용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지만, 다른 연령에 비해 4세의 경우에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3〉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2016년)

단위: %(명), 개, 만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비율(수)	평균 이용개수	과목당 평균비용	총 평균 이용비용	이용 비율(수)	평균 이용개수	과목당 평균비용	총 평균 이용비용
전체	49.8(452)	2.9	2.1	5.8	65.2(334)	3.3	3.5	8.4
아동 연령별								
0세	9.5(5)	1.7	5.8	7.9	-	-	-	-
1세	27.4(66)	2.0	2.2	4.0	-	-	-	-
2세	55.8(148)	2.9	2.1	5.6	-	-	-	-
3세	66.0(108)	3.4	2.0	6.1	52.2(62)	3.5	3.2	8.0
4세	66.1(67)	3.2	2.3	7.3	66.4(119)	3.2	4.4	9.7
5세	70.6(57)	3.3	1.7	5.3	71.4(153)	3.3	2.9	7.5
F	-	10.3***	5.4***	4.8***	-	0.7	4.3*	2.9

주: 각 연령별 이용비용은 각 연령별 해당기관 이용 아동 대비 특별활동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이용비용은 비용지출이 있는 경우의 평균값임.

* $p < .05$, *** $p < .001$

2) 시간제 사교육에 대한 지출 비용

시간제 사교육은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는 종류가 다른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고에서는 서비스 종류별로 비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즉, 태권도 학원과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자녀의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은 이 2개 학원의 이용비용을 합산한 값이며, 그 외에도 학습지를 추가로 이용하고 있다면, 총액 기준 월평균 비용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학습지 이용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먼저,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학습지 이용비율이 1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제 학원이 13.4%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서비스였다. 영유아의 연령별로는 5세의 경우 시간제 학원 이용비

율이 41.9%로 가장 높았고, 학습지 이용비율도 36.2%에 달했다. 4세의 경우에는 학습지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4세아 중 33.4%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제 학원 이용비율도 21.1%에 달했다. 즉, 4세 이상 유아들의 경우 학습지 및 시간제 학원 등의 사교육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3세아 중에서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28.2%로, 3세 이후 사교육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개수는 평균 2개로, 영유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 개수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4세부터 이용 개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총 이용비용은 평균 11만 8천원으로, 0세 6만 2천원, 1세 5만 2천원, 2세 8만 8천원, 3세 7만 9천원이었다. 4세에는 시간제 사교육 총 이용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평균 13만 2천원이었으며, 5세에는 평균 15만 8천원이었다. 즉, 영유아들은 나이가 많아질

〈표 4〉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율 및 총 비용(아동당 월평균, 2016년)

단위: %, 개, 만원, (명)

구분	이용 비율					평균 이용 개수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수)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 활동	통신 교육			
전체	13.4	2.6	19.3	3.0	1.2	2.0	11.8	(1,820)
아동 연령별								
0세	4.6	1.1	0.8	1.2	0.0	1.3	6.2	(301)
1세	2.2	1.2	7.4	2.3	1.0	1.1	5.2	(300)
2세	1.7	1.3	8.6	2.0	1.3	1.5	8.8	(300)
3세	7.4	1.6	28.2	6.8	1.6	1.5	7.9	(301)
4세	21.1	5.2	33.4	2.8	1.7	2.2	13.2	(300)
5세	41.9	5.1	36.2	2.9	1.5	2.4	15.8	(318)
$\chi^2(df, F)$	335.4(5)***	23.8(5)***	228.5(5)***	18.6(5)**	5.2(5)	16.1***	14.2***	

주: 1) 이용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을 의미하며, 해당 서비스를 한 개라도 이용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음.

2) 평균 이용 개수는 각 서비스의 이용 개수를 합산해서 평균함. 예를 들어, 시간제 학원 2개와 학습지 2개를 이용하는 경우 4개임.

3)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1$, *** $p < .001$

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율도 증가할 뿐 아니라, 이용개수도 많아지면서 지출도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종류 및 이용 개수별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교구활동의 경우 과목당 평균비용이 9만 7천원으로 다른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에 비해 이용단가가 비싼 편이었으며, 학습지가 3만 9천원으로 가장 저렴하였다. 시간제 사교육 종류별 이용 개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개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긴 하지만, 학습지의 경우에는 2개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9.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학습지의 경우 평균 1.8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시간제 학원과 개인 및 그룹지도는 평균 1.5개, 교구활동은 평균 1.1개, 통신교육은 평균 1개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시간제 사교육 종류별 총 이용비용은 시간제 학원의 경우 13만 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 및 그룹지도 13만원, 교구활동 10만 2천원, 학습지 6만 8천원, 통신교육 4만 5천원 순이었다. 즉, 학습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용비용이 높고 이용 개수는 많지만, 과목당 이용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총 지출 비용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반면, 시간제 학원은 4세 이후 유아를 중심으로 이용비용이 높고 이용 개수도 적지 않은 편인데다, 과목당 이용 단가가 9만 1천원으로 비싼 편으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중에서 평균 지출 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인 것으로 분석됐다.

3)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은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돌봐주는 분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혈연 도우미와 비혈연 도우미로 구분할 수 있다.¹³⁾ 특히, 아동연령별로 월평균 비용이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각 연령별 응답자 수가 적은데 이들의 비혈연 도우미 이용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절대적인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¹⁴⁾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혈연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0세아의 경우 1일

〈표 5〉 시간제 사교육 종류별 이용 개수 및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2016년)

단위: %, 개, 만원, (명)

구분	이용 개수				과목당 평균비용	월평균 이용비용	(수)
	1개	2개	3개이상	평균			
전체	50.3	25.1	24.6	2.0	6.2	11.8	(582)
시간제 학원	67.4	20.2	12.4	1.5	9.1	13.3	(244)
개인 및 그룹지도	70.2	13.7	16.1	1.5	8.9	13.0	(47)
학습지	43.7	39.1	17.2	1.8	3.9	6.8	(350)
교구활동	89.5	9.5	1.0	1.1	9.7	10.2	(54)
통신교육	100.0	0.0	0.0	1.0	4.5	4.5	(22)

주: 해당 서비스를 한 개라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13) 단, 본 조사에서는 비혈연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0.7%(14명)에 불과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혈연 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해석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표에 제시한 이유는 이 비용이 개별돌봄서비스 총 이용비용에 합산되어 활용되기 때문임.

〈표 6〉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및 총 비용(아동당 월평균, 2016년)

단위: %(명), 일, 시간, 만원

	혈연 도우미				비혈연 도우미				총액 기준 월평균 비용
	이용 비율(수)	평균 주당 이용 일수	1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이용 비율(수)	평균 주당 이용 일수	1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9.3(168)	4.9	5.1	56.3	0.7(14)	2.5	6.8	55.7	56.3
아동 연령별									
0세	11.2(34)	4.8	8.0	75.8	1.1(3)	4.4	8.1	126.9	82.4
1세	11.1(33)	4.2	4.1	29.7	1.2(4)	1.0	2.7	4.4	24.0
2세	9.8(29)	4.7	4.0	41.6	1.2(4)	1.5	10.7	40.0	41.5
3세	11.8(35)	5.5	4.6	69.0	0.3(1)	3.5	5.8	35.2	67.5
4세	6.0(18)	5.3	4.4	59.3	0.2(1)	5.0	1.2	18.0	57.8
5세	6.0(19)	5.2	4.6	46.7	0.1(1)	5.0	6.0	120.0	49.0
F	-	3.9**	6.4***	3.8**	-	3.6	3.0	1.6	5.7***

주: 혈연 도우미가 2명인 경우 시간과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1$, *** $p < .001$

평균 혈연 도우미 이용시간이 8시간으로, 거의 종일 혈연 도우미가 아이를 돌봐주는데 반해, 1세 이상의 경우에는 4시간대의 이용시간을 보여, 기관 이용과 병행하여 혈연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개별돌봄서비스 총 이용비용은 평균 56만 3천원으로, 0세아의 경우 1일 평균 이용 시간이 긴만큼 이용비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돌봄서비스는 영유아를 위한 다른 교육·보육서비스에 비해 이용 비율은 낮고, 이용 단가는 비싸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이 높고 영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4.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첫째, 0~2세와 5세에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2012

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비용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 연령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 2013년 이후에는 교육·보육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률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 상당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기관에 맡겨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도하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수요를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보육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3세 이상 유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3세 이후 학습지 등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증가

했으며, 4세 이후에는 시간제 학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정 내 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육수당의 인상 혹은 아동수당의 도입이 자칫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따라서, 가정 내 양육의 활성화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의 형태일 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동일 연령의 영유아들 사이에서도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지출 비용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일부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사립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의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 바가 크긴 하지만, 유아기 자녀의 경우 상당액의 수업료를 지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이용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비용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를 고려할 때, 영유아 가구를 위한 교육·보육지원 정책이 가계 부담의 완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

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엿볼 수 있었다.

넷째,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제 및 유치원 원비 상한제 등으로 보육료·유아학비의 부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비용이 상당한 것은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것이다. 물론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사교육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운영비 부족을 특별활동비로 전가하여¹⁵⁾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를 축소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¹⁶⁾을 가지고,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 최성은(2016).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 규제. 재정포럼, 2016년 1월호(235호), 23-35.

16)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 라인' 및 교육부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